

어린이의 共感成立에 있어서의 要因分析

Several Factors Influencing on Children's Empathic Behavior

金 娜 英*
Kim, Na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social-status and mode of stimulus-presentation on children's empathic behavior, where empathy is defined as either the comprehension and recognition of an affective state in stimulus persons (others) or the empathic response to that perception.

Middle-and lower-class kindergarten children were presented with a series of either short-sentence stories or short-pictorial stories. The subjects were asked to indicate how the child in each situation felt by selecting a "happy", "sad", or "angry" face to complete the picture accompanying each story. Immediately following the first question, children were asked to state verbally how the child in the picture might feel.

The main results were (1) The mean empathy scores for the comprehension and recognition of an affective state in others and the empathic response to that perception was higher in middle-class children than in lower-class children. (2) There were differences in empathy scores to the three affective situations, i.e. the mean score for both happiness and sadness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for aggression, and (3) The empathy scores in the pictorial-stories were greater than in the sentence-stories.

1. 緒 論

상대방의 感情을 理解한다(共感的 成立)라고 하는 경우, Feshbach & Roe(1968)의 定義에 의하여 다음의 2 가지 水準으로 區別된다. 하나는, 어떤 特定한 場面에서 他人의 表情이나 몸짓, 音聲 또는 행동묘사로 부터 그 사람의 생각이나 感情, 動機등을 推論할 수 있는 認知的 理解水準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他人에 관한 情報로부터 判斷者 自身도 他人과 같은 感情狀態를 經驗하는 共感的 理解水準이다. 成人들은 情報의 內容에 따라서 自身の 視點과 他人의 視點을 區別해가면서 어떤 水準의 共感を 喚起할 것인가를 마음대로 制御할 수 있다. 그러나 自身の 視點과 他人의 視點과를 충분히 區別할 수 없는 어린이(Piaget & Inhelder, 1956)에 있어서는 (1) 他人의 感情을 그 狀況으로 부터 推論하는 것과, (2) 거기에 대한 共感的 感情을 體驗하는 것과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1)의 問題에 관하여 Burns & Cavey(1957)는 3세~6세반의 어린이에게 짧은 이야기와 그 場面을 묘사한 刺戟카드를 提示하여, 그 主人公의 感情에 관하여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 結果, 3세~5세까지의 어린이가 5세 이상의 어린이보다 共感的 反應이 有意하게 적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이유를, 5세 이하의 어린이는 Piaget(1926)가 말한바와 같이 自己中心的이기 때문에 他人의 感情을 認知하는 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Borke(1971, 1972)는 어린이가 自己中心的이라고 判斷된 것은 他人의 理解에 관한 刺戟의 복잡성, 반응측정 방법등의 課題나 절차가 어린이의 能力이나 經驗을 초월한 것이 原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上記와 같이 言語報告를 하게 하는 대신에 미리 준비한 表情카드를 選擇하게 하는 測定方法을 사용하였다. 즉, 3세부터 8세 어린이에게 一連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主人公의 얼굴을 空白으로 하여 그 이야기의 場面을 묘사한 그림을 提示하여 主人公의 感情을 가장 잘 나타낸 表情카드를 選擇하게 하였다. 그 結果에 의하면 3세의 어린이라도 他人의 感情을 推論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Gnepp et al.(1982)는 이야기가 言語로써 狀況이 提示되었을지라도 各部分을 완전히 理解하도록 해주면 4세의 어린이도 他人의 狀況에서 적절하게 感情을 判斷할 수 있다고 하였다. (1)과 (2)의 問題에 관해서 Feshbach & Roe(1968)는 6세와 7세 어린이들을 對象으로 기쁨과 슬픔의 場面을 記述한 이야기를 提示하여 主人公의 感情(社會的 理解)과 거기에 대한 被驗者 自身の 感情(共感的 反應)을 질문하는 실험을 통하여, 主人公에 대한 感情의 推論은 어린이도 可能하나 共感的 反應은 그것 보다 늦게 發達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한편, Borke(1973)에 의하면 어린이가 他人의 感情을 理解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어린이가 어떤 文化的, 社會的 背景要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Borke가 指摘한 可能性을 「類似體驗」의 有無라는 觀點에서 5세 어린이를 對象으로 檢討한 橋本·丸野(1984)는, 他人의 感情을 어느 程度 理解할 수 있는가는 他人의 經驗과 類似한 經驗을, 그 判斷하는 어린이가 어느 程度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아 내었다. 그것과 같은 結果를 Glasberg & Aboud(1982)와 Higgins(1981)에서도 볼 수 있다. Higgins(1981)는, 他人의 內的 特性을 判斷하는데 있어서 自身에 관한 情報을 利用하는 것을 自己準抛(self-reference)라고 부르고, 특히 過去의 自己를 準抛點으로 하는 方略을 回想的 自己準抛(retroactive self-reference)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回想的 自己準抛는 4~5세에서는 아직 不充分하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Glasberg & Aboud(1982)는, 실제로 4~5세 까지의 어린이는 他人이 지금 어떤 感情을 經驗하고 있는가를 判斷하는 실마리를 자신의 過去 經驗에서 찾아내고 認知하는 것은 困難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概觀에서처럼 共感成立을 측정하는 課題의 복잡성(Burns & Cavey, 1957; Chandler & Greenspan, 1972)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측정방법(言語報告에 의한 方法: Feshbach & Roe, 1968; 非言語的 測定法: Borke, 1971, 1973)이나 被驗者의 類似體驗의 有無, 認知能力水準이 操作되어져 있는지 어떤지가 研究者들 사이에서 반드시 一致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어린이의 共感成立의 特徵을 檢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첫째,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體驗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狀況을 直接的인 言語情報과 非言語情報(繪畫情報)로 提示하였을 때 앞서말한 共感成立의 2가지 水準에서 어떤 差異가 있는지 比較 檢討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提示하여 表情카드로 感情을 알아내게 하는 점은 從來의 非言語的 測定法과 같으나 이야기를 提示할 때에 그 이야기를 읽어주는 條件(S群으로 부름)과 이야기의 內容을 그림으로 그린 카드를 보고 알아내게 하는 조건(P群)을 設定하였다. S群은 문장화된 言語情報로 부터 主人公의 行動을 이미지하여 그 이미지된 行動描寫 사이의 關係로 부터 主人公의 感情을 推論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 비하여 P群은 主人公의 行動描寫로 부터 直接 感情의 推論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言語能力이 뒤떨어지는 어린이들의 共感成立을 分析하는 경우에는 P群쪽이 어린이의 能力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目的은 共感成立의 2가지 水準이나 이야기의 提示方法에 있어서 中流層, 下流層이라는 社會·經濟的 地位*가 어떻게 영향을

* 本研究에서는 社會·經濟的 地位에 의한 階層差를 選定하였다. 그로 인하여, 만일 共感成立 水準이 階層差에 의하여 有意하게 다르다는 結果가 얻어졌을 경우, 그 結果는 階層差에서 起因하는 感情 體驗의 差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社會的 階層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린이의 認知的 要因(특히 言語能力이나 推理能力)의 差異에 의한 것인지는 判斷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어느쪽 要因이 重要な 決定 要因인가는 本研究結果를 근거로 하여 다시 檢討하려고 생각한다. 實際로 그러한 研究의 흐름으로 다음의 研究를 진척시키고 있는 段階이며, 本研究는 말하자면 어디에 어떠한 問題가 있는가를 把握하기 위한 것이다.

미칠 것인가 하는 認知와 文化的 背景과의 關聯性을 알아 보는 것이다. 여기서, 中流層의 어린이와 下流層의 어린이에 있어서는, 日常生活하는 속에서 感情이 生起하는 狀況이나 경위가 다르지 않을까 假定해 본다면, Borke(1973), 橋本·丸野(1984)에서도 示唆된 것처럼 共感成立의 水準이 階層에 의해서 다를 것이 豫想된다. 즉 一般적으로 말해 온 것처럼 中流層의 어린이는 言語能力이 높고(藤永, 1975), 또 여러가지 狀況에 있어서 많은 感情體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提示方法에 의한 影響이 없이 2가지 水準에 대해 높은 得點을 나타낼 것이다.

II. 方 法

1. 被驗者

만 5세의 中流層과 下流層의 어린이를 각각 30명씩 모두 60명으로 하였다. 各階層의 어린이는 P群과 S群으로 각각 15명씩 無選 배당되었다. 中流層의 어린이는 유치원에서 부모의 평균 학력이 高卒이상이며,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린이를 선정하였다. 下流層의 어린이는 유아원에서 부모의 평균 학력이 高卒이하이며, 아버지의 직업이 노동직, 시장의 상인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린이를 선정하였다.

2. 實驗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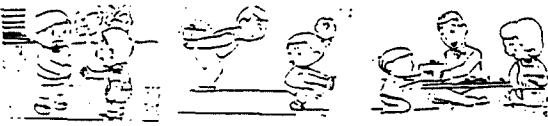





經濟的 水準(2) × 提示方法(2) × 感情(3)의 factorial design에 의해 三元變量分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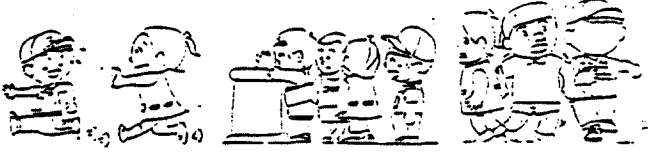


3. 實驗材料

提示하는 이야기는 어린이의 日常生活속에서 「기쁨」 「슬픔」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되는 具體的 場面을 묘사한 9가지 이야기(각 感情에 대하여 3가지씩의 이야기가 포함됨)를 준비하였다. P群에게는 각 이야기의 主人公의 行動狀況을 만화풍으로 그려서 색칠을 한 3장의 카드를 준비하였다. 다만 3번째 카드는 感情推論의 실마리가 되지 않도록 主人公의 얼굴을 공백으로 남겼다(표1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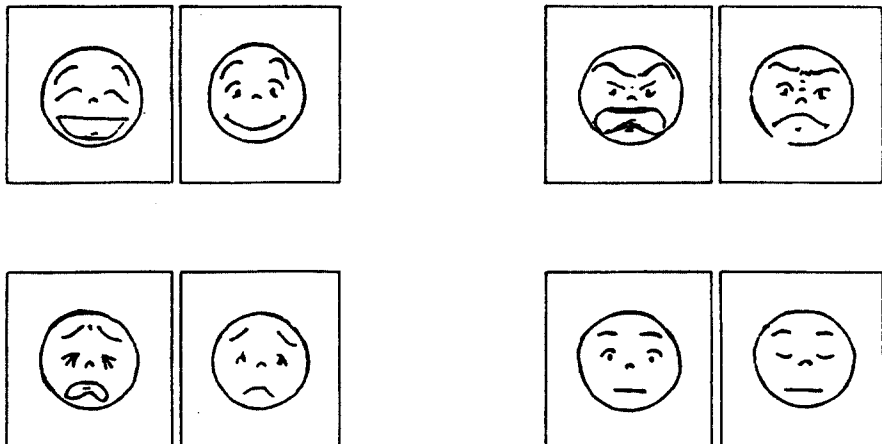
他人의 感情推論 및 自身の 感情體驗을 判斷하기 위하여 사용된 表情카드는 그림 1과 같이 기쁨, 슬픔, 분노의 각각 2장(表現程度의 強弱)과 distractor·用 2장으로 모두 8장이다. 또한 實驗者가 가정한 感情의 內容이나 表情이 어린이들이 理解할 수 있는 材料인지 아닌지를 確認하는 意味로 大學生에게 評價시킨 결과 70%以上の 一致率을 나타낸 것들을 材料로써 선택하였다.

<표 1>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자료

感情	S 群	P 群
기	1. 영수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읍니다.	
	2. 영수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읍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영수 모르게 생일선물을 사오셨읍니다.	
	3. 저녁 밥을 먹을때 영수는 선물을 받았읍니다.	
분	1. 어느날밤, 지현이는 다음날 소중을 갈 준비를 하였읍니다.	
	2. 지현이는 내일은 꼭 좋은 날씨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잤읍니다.	
	3. 다음날, 아침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날씨가 맑게 개이고 구름한점 없었읍니다.	
말	1. 수영이는 어느날 짚에서, 강을 밟은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알게 되었읍니다.	
	2. 수영이는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께 키우자고 부탁드렸읍니다.	
	3.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하시고, 수영이 말을 듣고 계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잘 보살피 주어야한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수영이는 강아지 이름도 지어주고 소중히 키웠읍니다.	
말	1. 헤민이는 토끼 두마리를 소중하게 키웠읍니다.	
	2. 어느날, 헤민이가 떡이를 주러가 보니까 한마리가 병들어 누워 있었읍니다.	
	3. 다음날 다시 가보니 토끼는 그만 죽어 있었읍니다.	
품	1. 현주는 담임선생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상냥하고 친절한 현주를 귀여워 해주셨읍니다.	
	2. 어느날 담임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숨가쁜 기침을 하고 계셨읍니다.	
	3. 다음날부터 현주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감기가 몹시 심해서 쉬어야 했읍니다.	
품	1. 철희는 로봇 장난감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모아 두었읍니다.	
	2. 어느날 그것들을 정리하다가 잘못하여 그중에서도 가장 아끼던 로봇를 땅에 떨어뜨렸읍니다.	
	3. 그래서 그 로봇은 쓸 수도 없이 엉망으로 부서져 버렸읍니다.	

感情	S 群	P 群
분	1. 영화와 친구들은 열심히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민수는 밖에서 철봉을 하며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3. 영화가 아무리 불러도 민수는 모르는 척하며 청소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1. 기영이는 숨바꼭질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 다녔기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2. 물을 먹으려고 수도가에 갔더니 벌써 여러명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영이도 맨 뒤로 가서 줄을 섰습니다.	
노	3. 그런데 나중에 온 어떤 남자가 이가 기영이 앞으로 새치기 하고 들어와 먼저 물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1. 은주는 그림물감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 조금만 더 그리면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고양이 창문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3. 고양이는 은주의 거의 다 된 그림위에 올라가서 더러운 발자국을 묻혀 놓았습니다.	

<그림 1> 실험에서 사용된 表情카드



4. 實驗節次

實驗은 모두 個人面接形式으로 進行하였다. 우선 8장의 表情카드를 나란히 늘어놓고, 각각의 카드에 대하여 “이것은 어떤 얼굴이니?” 하고 질문하여 그 얼굴표정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알게한다. 여기서 정확하게 認知하지 못한 어린이에게는 實驗者가 각각의 表情카드의 感情을 가르쳐주고 그 어린이가 같은 얼굴의 感情을 반복하여 알아맞출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킨다. 表情카드가 완전히 理解되었을 때 이야기를 提示한다.

S 群은 각각의 이야기속의 主人公의 이름을 알려준 후에 實驗者가 이야기를 하나씩 읽어나간다. 이야기를 전부 읽고나서, ① 이때의 主人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하는 질문을 하여 主人公의 感情을 推論시켜, 그 감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되는 表情을 8장의 카드 속에서 선택시킨다. ② 그런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는(被驗者) 어떤 기분이 드는가를 물어서 被驗者 自身이 느끼는 感情과 일치하는 表情카드를 선택시킨다. P 群은 主人公의 이름을 알려주고 3장의 그림카드를 배열하여 主人公의 行動 및 마음을 알게한 후는 S 群과 같은 순서로 질문해 나간다.

Ⅲ. 結 果

1. 表情카드의 認知課題

各 表情카드에 있어서, 被驗者가 表現한 感情과 實驗者가 미리 設定한 基準과 一致한 경우를 正反應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表情카드로 부터 表現되는 內容으로써는 活動表出(예를 들면, 슬픔의 表情카드에 대하여 “울고 있다.”) 과, 感情表出(예를 들면, 슬픔의 表情카드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의 2가지 側面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各 表情카드로 부터의 表現內容은 대부분의 어린이가 活動表出水準의 反應을 나타내었다.

<표 2> 各 表情카드에 대한 正反應率

계 층	群	기쁨		슬픔		분노	
		强	弱	强	弱	强	弱
中 流 (M)	S 群	1.0	1.0	.93	.80	.86	.86
	P 群	1.0	.93	1.0	.73	.86	.86
下 流 (L)	S 群	1.0	.80	.80	.60	.80	.66
	P 群	1.0	.80	.93	.60	.86	.86

表 2 에는, 各群의 表情카드 認知課題에서의 正反應率이 나타나있다. 表 2 에서 보는 바와같이 各表情카드에 대한 感情의 認知수준에서는 중류, 하류계층과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또, 各계층에서의 P群과 S群사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感情認知수준은 兩群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이야기에 의한 感情의 推論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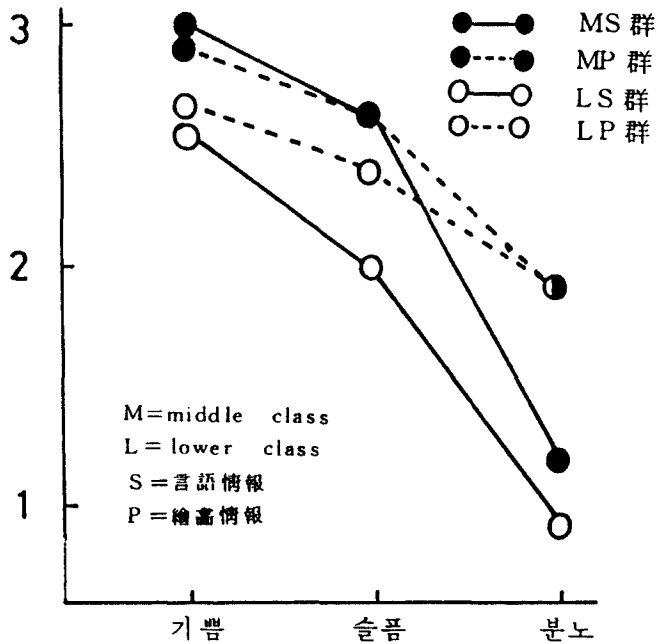
得點化는 다음의 觀點으로 부터 이루어졌다. 즉, 各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그림을 보고 主人公의 感情을 어떻게 推論하였는가, 또 被驗者 自身이 어떤 感情을 喚起했는가의 分析은, 미리 基準으로써 測定한 各各의 이야기에 대한 大學生의 感情評價와 一致했는지 아닌지에 의하여 評價되었다. 다시말해서, “기쁨”, “슬픔”, “분노”의 各이야기에 대하여 “기쁨”, “슬픔”, “분노”의 表情카드를 선택한 경우만을 正反應으로 分類하였다. 이때, 主人公(他人)에 대한 感情推論의 得點을 認知的(社會的) 理解의 指標로 하고, 被驗者 自身(自己)에 대한 感情喚起의 得點을 共感의 理解(共感의 反應)의 指標로써 區別하여, 各각의 立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그림 1 에서 처럼 感情推論의 判斷에 사용된 表情카드는 各 感情에 대해 強弱의 2장이 있으나 어느쪽을 선택해도 正反應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各 感情을 나타낸 이야기에 대한 正反應의 得點은 0~3 點으로 分布되었다.

1) 認知的(社會的) 理解

各 스토리의 主人公의 感情을 中流(M), 下流階層(L)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推論하고 있으며, 또 그 推論方式이 이야기의 提示方法에 따라서(S群과 P群) 어떻게 다른지 그 平均得點이 그림 2 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의 結果를 기초로 하여 2(經濟的 水準) × 2(提示方法) × 3(感情)의 三元 變량분석을 한 結果, 經濟的 水準의 主效果가 有意하며($F(1.56) = 4.6, p < .05$), 中流階層의 어린이가 下流階層의 어린이 보다도 主人公의 感情을 바르게 推論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提示方法의 主效果도 有意하며($F(1.56) = 6.87, p < .05$), 言語提示보다도 그림이야기提示가 主人公의 感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쉽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또한 표 3 에서 처럼 “기쁨”, “슬픔”, “분노”의 感情推論에서도 差異가 있음을 보였다($F = 52.08, df = 2/112, p < .001$). 그래서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를 Tukey 法에 의해 檢定을 한 結果, “기쁨”, “슬픔”의 感情推論에 있어서 그 어느쪽도 “분노”의 感情推論보다 용이하다는 것을 알았다($p < .01$).

그림 2 에 示唆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의 提示方法에 따라 感情推論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提示方法 × 感情의 相互作用도 有意하였다($F = 5.84, df = 2/112, p < .01$). 이것에 대해 單純主效果의 檢定을 한 結果, 感情推論이 容易한 “기쁨”, “슬픔”은 提示方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나 感情推論이 困難한 “분노”의 경우에는 그림提示가 言語提示 보다 推論이 容易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各群의 이야기에 대한 認知的 (社會的) 理解의 得點



<표 4> 各 群의 共感的 理解의 差異

	SS	DF	MS	F
群間要因 (Between)	9.41	59		
A (經濟的 水準)	2.05	1	2.05	15.77**
B (提示方法)	0.01	1	0.01	
AB (經濟的水準×提示方法)	0	1	0	
誤 差	7.35	56	0.13	
群內要因 (Within)	20.8	120		
C (感情)	11.63	2	5.81	83**
AC (經濟的水準×感情)	0.09	2	0.04	
BC (提示方法×感情)	0.21	2	0.10	
ABC (經濟的水準×提示方法×感情)	0.08	2	0.04	
C×誤 差	8.79	112	0.07	

**p < .01

<표 3> 各 群의 感情推論의 差異

	SS	DF	MS	F
群間要因 (Between)	60.67	59		
A(經濟的水準)	4.05	1	4.05	4.60*
B(提示方法)	6.05	1	6.05	6.87*
AB(經濟的水準×提示方法)	0.94	1	0.94	-
誤差	49.63	56	0.88	
群內要因 (Within)	115	120		
C(感情)	52.08	2	26.04	52.08***
AC(經濟的水準×感情)	0.64	2	0.32	-
BC(提示方法×感情)	5.84	2	2.92	5.84**
ABC(經濟的水準×提示方法×感情)	0.07	2	0.03	-
C×誤差	56.37	112	0.50	

* $p < .05$

** $p < .01$

*** $p < .001$

2) 共感的 (共感的 反應) 理解

各 이야기에 대하여 被驗者가 어떤 感情을 換起했으며, 그것이 主人公의 感情推論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의 一致率을 各 群別로 分析한 結果가 표 4에 提示되었다.

認知的 理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 (提示方法) × 2 (經濟的 水準) × 3 (感情)의 分散分析을 한 結果, 經濟的 水準의 主效果, 感情의 主效果가 各各 有意하였다. ($F(1, 56) = 15.77, p < .01$; $F(2, 112) = 83, p < .01$). 經濟的 水準의 主效果가 有意하였다는 것은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中流階層의 어린이는 主人公에 대한 感情推論과 자신이 換起한 感情과의 사이에 一致率이 높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그 一致率의 程度가 “기쁨”의 이야기에 비하여 “슬픔” 및 “분노”, “특히 분노”의 이야기에서 낮은 것을 感情의 主效果의 原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Tukey 檢定을 한 結果, 그 傾向이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p < .01$).

IV. 論 議

어린이가 어떤 狀況에 있어서 他人의 感情을 推論(認知的 理解)하는 것과, 그 狀況에서 자기 자신도 他人과 같은 感情을 喚起(共感的 理解)하는 것과의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의 두가지 觀點에서 檢討하는 것이 중요한 目的이었다. 첫째, 어린이들의 文化的 背景 要因의 하나인 社會·經濟的 地位가 兩者의 理解水準에 어떻게 다른 效果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共感成立과 文化的 背景과의 關聯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狀況을 묘사한 이야기를 言語情報로서 提示하는 條件(S群)과 繪畫情報에 의하여 提示되는 條件(P群)을 設定한 경우에 어린이는 어느쪽 條件에서 보다 많은 共感性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認知的 理解의 特點은 繪畫情報(P群)쪽이 言語情報(S群)보다도 높았다. 더구나 그 效果는 感情推論이 쉽다고 보고된 “기쁨”, “슬픔”의 이야기 보다는 感情推論이 어렵다고 보고된 “분노”의 이야기에 있어서 현저하였다. 繪畫情報 條件의 特點이 높은 결과는 앞서 연구 목적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言語情報의 경우에는 文章化된 言語情報로부터 실제로 눈 앞에 묘사되어 있지 않은 主人公의 行動을 이미지화 해야 하며, 그 이미지된 行動묘사 사이의 관계로부터 主人公의 感情을 推論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言語能力이 뒤떨어지므로 他人의 感情을 推論할 수 있는 認知的 理解의 水準이 過小評價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거기에 비하여, 繪畫情報에 의한 경우에는, 言語情報로부터의 主人公의 行動的 場面の 이미지화나 狀況設定이라고 하는 認知的 活動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行動場面으로부터 他人의 感情을 推論하는 것이 可能하며,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認知的 理解水準을 測定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兩情報의 質의 差異가 共感成立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가져오지 못하는 發達段階는 언제쯤일까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일것이나, 그 이상으로 5세이하의 어린이를 對象으로 하는 경우에는 Borke(1971, 1972)의 結果에서도 示唆된 것 처럼, 測定되어야 할 側面이 더욱 잘 反映되어질 수 있는 條件設定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結果는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어린이의 世界觀을 規定한다고 생각되는 文化的 背景要因의 하나인 社會的位置가 他人의 感情推論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그림 2, 3에 나타난 것처럼, 認知的 및 共感的 理解의 兩水準에 있어서 中流階層의 어린이가 下流階層의 어린이에 비하여 높은 得點을 나타내었다. 이 結果는 자유중국과 美國의 幼兒를 對象으로 中流階層과 下流階層의 어린이를 비교하여, 兩國의 中流階層의 어린이가 높은 認知的 理解水準을 보인 Borke(1973)의 結果와 一致하고 있다. Borke(1973)는 共感的 理解水準을 測定하지 않았으나 本研究에서는 階層의 差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共感的 理解水準은 認知的 理解水準에 비하여 發達의으로 늦다는 結果를 발견한 Feshbach와 Roe(1968)의 입장을 本 實驗結果에 적용한다면, 下流階層의 어린이가 他人理解에 관한 發

達의水準은 中流階層의 어린이 보다도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개 한개의 表情을 理解하는 能力에서는 階層差가 별로 없었다는 結果를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下流階層의 어린이가 推論能力이 낮은 것은 하나 하나의 場面을 全體的 문맥속에 삽입시키거나 그 全體的 문맥의 背景속에 있는 因果性을 推論하는 能力이 낮다는 것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認知發達水準에 差異를 가져오는 要因이 무엇인가는 明確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可能性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中流層의 어린이가 下流層의 어린이에 비하여 量的으로 質的으로도 풍부한 經驗이나 知識을 가진 부모나 친구와의 關係를 통하여 여러가지 狀況을 經驗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어떤 問題의 狀況에 대해서도 多面的인 方法으로 대처해 나가거나 論理的 思考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自己와 他人과의 視點을 分化시켜주며, 狀況에 따라서는 自己의 視點에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自己의 視點을 떠나서 他人의 立場을 客觀的으로 推論하거나 理解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이러한 多面的 視點의 確立과 脫自己 中心的인 見解나 他人 認知는, 中流層의 부모들의 家庭教育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책등을 통한 매스미디어로 부터의 情報에 접하는 빈도와도 깊은 關係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階層間의 共感的 理解水準의 差異를 가져오는 要因을 明確히 밝히는 일은 그렇게 용이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課題로 남아 있다.

V. 參 考 文 獻

- 橋本巖, 丸野俣一. (1984). 幼兒の共感成立に及ぼす「類似經驗」有無の影響 — 物語理解さ通門一. 九州大學教育學部紀要(教育心理學部門), 29, 165-173.
- 藤永保. (1977). 兒動心理學. 有斐閣. 311-315.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f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3-269.
- Borke, H. (1972). Chandler and Greenspan's "ersatz egocentrism", A rejoi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7, 107-109.
- Borke, H. (1973).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between three and six years of age: A cross-cultur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9, 102-108.
- Burns, N., & Cavey, L. (1957). Age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among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11, 227-230.
- Chandler, M.J., & Greenspan, S. (1972). Ersatz egocentrism; A reply to H. Borke. Developmental Psychology, 7, 104-106.

- Feshbach, N.D., & Roe, K.(1968). Empathy in six and seven year olds.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Glashberg, R. & Aboud, F.(1982). Keeping one's distance from sadness: Children's self-reports of emotional exper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87-293.
- Gnepp, J., Klayman, J. & Trabasso, T.(1982). A hierarchy of informational sources for inferring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3, 111-123.
- Higgins, E.T.(1981). Role taking and Social judgment: Alternative developmental perspective and processes. In Flavell, J.H & Ross, L.(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aget, J.(1926).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New York: Harcourt - Brace.
- Piaget, J. & Inhelder, B.(1956). The Child's Conception of Spa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감사의 말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종 지도해 주신 九州大學 教育學部 丸野 俣一 教授께 감사를 드립니다.